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영택¹, 송세관^{2*}

¹여주대학교 군사학부, ²조선이공대학교 군사학부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ceptability in Social Relationships-

Young Taek Kim¹, Se Gwan Song^{2*}

¹Division of Military Science, Yeosu University

²Division of Military Scienc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유입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교육적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 수용성이 이러한 영향에서 어떠한 조절 효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 경제적 활동에서 비롯된 소득이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주요하게 작용하였고, 교육적 요인의 배타적 수용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유사 조절 효과로 유의미한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본적인 경제적 소득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현지 지원정책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을 돕는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growing influx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n society has raised the issue of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which is social.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economic and educational factors of North Korean defectors needed to adapt to Korean society and analyze how acceptability in social relations is regulatory in these situations. This study designed a research model that examines economic and educational factors, which are major for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analyzes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acceptance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income from economic activities played a major role in feeling happy in life. Furthermore, the exclusive acceptance variable of educational factors showed significant figures due to similar adjustment effects on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herefore, various support programs are needed to secure basic income to increase the adap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Korean society. In addition, a policy proposal is needed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adapt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effective local support measures.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cceptability Of Social Relations, A Sense Of Well-Being, Support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 Se-Gwan Song(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email: segwans@hanmail.net

Received August 30,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Revised September 29,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통일부에 의하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3,752명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적응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궁극적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의 요지는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이들의 삶이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를 방증 하듯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50%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심한 부적응으로 한국 사회로부터 재이탈하고자 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Issue) 가운데 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교육적 변수의 요인보다 사회적 관계 수용의 정도가 정착 만족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제언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이론적 논의

2.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접근방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후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동화 및 정착에 대한 불안감과 환경적 요인, 대인관계, 직업, 교육 등의 애로사항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관심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윤인진은 그의 저서 『북한 이주민』에서 북한 이주민 연구의 이론적 스펙트럼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응론은 북한이탈주민의 각 개인적 성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요인이 한국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론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편견 및 차별, 그리고 경제 구조와 같은 요인들이 각 개인의 생활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문화론이다. 다문화론은 한국의 다문화 인프라 환경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 가치관과 행동양식 수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로의 통합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

2.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2.2.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제도 개선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윤여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지는 실질적인 육구의 달성을 위한 지원 방법과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2].

박은숙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한국 사회 정착 지원정책”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와 한국에 저소득층 지원내용과의 형평성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을 계속해서 연구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3].

유옥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갖는 가치를 중요하게 설정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민간 단체 간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4].

2.2.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적응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론에서 접근되었던 변수들이 반영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선미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소득수준, 교육 경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인식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삶의 질은 연령,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5].

공수연·김정미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자아 존중감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한국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국 사회의 차별과 적응 간의 매개효과는 자아 존중감에서 비롯된다고 검증하였다[6].

오은경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적응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업 적응과정에서 지각한 직업 적응 개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7].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표면적 요인은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적, 교육적 요인이며, 내면적 요인으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표면적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경제적, 교육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인 사회적 관계 수용성이 조절적 변수로써 작용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3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 제도

2.3.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및 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인적 자원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적응 및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8].

북한이탈주민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2012년 이후부터 국경 경비 강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1,500여 명 이하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1,418명이 입국하였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33,7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9].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형태를 분석해 보면, 2000년대 이후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변화하였다. 또한 과거의 탈북 원인으로 주목된 것이 경제난이었다면, 최근의 변화는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원하는 등 탈북의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 이탈의 원인과 계층(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층)이 변화하는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감소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예측할 수 있다[10].

2.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 과정은 최초 국내 입국하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3단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1단계는 입국 지원 단계로 이탈 후 해외에서 재외 공간 및 관련 기관에 보호 신청을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1개월 내외의 관계기관 신문·조사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2단계는 보호 지원 단계로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 12주, 400시간을 받고 임시 정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보호 단계인 3단계는 실질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지역 적응(전국 25곳) 교육을 위해 전국 하나센터에서 8일간 50시간의 교육 및 지원으로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의 주요 요인인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 새로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모형으로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며, 경제적 요인은 경제적 소득과 직업의 수용, 교육적 요인으로는 본인과의 자녀의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는 사회적

관계 수용성 변수로서, 하위 변수는 사회적 지지와 배타적 수용을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정착 적응성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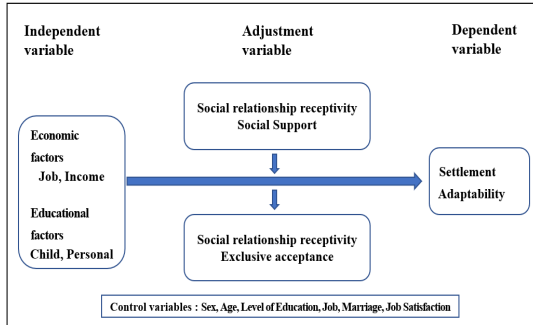


Fig. 1. A Study Model on the Acceptability of Social Relationships

3.2 연구가설

3.2.1 경제적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가설

경제적 요인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와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종사했던 전문성이 직업으로써 활용 가능하지와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취업, 자립적 경제 소득이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 정착에 있어서 직업 적응과 아울러 안정적인 경제 소득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노동인구와 비교해서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가 낮으며, 취업하였더라도 저임금, 단순 직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11]. 즉, 직업 안정성과 직업생활의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 개발이 부족하며, 직업을 지속하고 적응하는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직업의 수용 및 직업 적응 측면의 직무수행 능력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종사했던 전문성이 활용되고, 본인 적성에 우선하여 취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직업 알선으로 취업이 이루어져서 북한 이탈 전 습득한 업무 능력과 지식이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은 어떻게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북한 이탈 전 취득한 전문성이 직업에 활용될 수 있는가, 안정적 소득이 확보되어 자립의 측면에서 경제적 소득이 작용하는가 등을 경제적 소득의 하위 변수로 구성한다. 이처럼 북

한이탈주민의 직업 만족도와 경제적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 1-1.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 1-2. 경제적 소득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3.2.2 교육적 요인과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가설

조직 내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들을 교육적 요인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교육적 요인은 본인 교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교육의 기회는 이들이 한국 사회 활동에 필요한 관계성은 물론 향후 경제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은 공교육과 대안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으로 나누어진다. 북한 이탈 초기에는 하나원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외부교육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전담하여 지원되고 있다[12]. 그러나 한국 사회는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공교육이 축소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며 학생들 간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

「2018년 정착 실태조사」에서는 더 나은 한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24.9%가 「취업 교육」을 선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훈련 또한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및 자녀교육에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추론할 수 있다.

가설 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 2-1. 자녀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 2-2. 본인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한국 사회적응은 높아질 것이다.

3.2.3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은 인간이 어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사회의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

어울리는 과정 및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13].

사회적 관계 속에서 확보되는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변인에 속하여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도움을 주어서 사회적 관계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즉, 동료, 친구, 가족, 배우자 등으로부터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고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14].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그렇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자신감과 통달감이 신장하며 사회 수용 능력이 향상된다[15].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는 사람 사이에서 얻거나, 얻고 있다고 인식하는 다양한 도움이며, 개인이 적응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수용은 사회적 지지와 배타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둘 이상의 인간과 사회, 집단 간의 영향 관계를 말하는데, 인간은 이런 관계 형성과 작용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회적 지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교류 및 소통 등을 말한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참여에서 필요한 지원을 박탈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에서 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교육 수준, 차별,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된다[16]. 다시 말해서 배타적 수용성이란 여러 지원과 참여가 제한되고, 차별 등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사회적 배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벗어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접적인 요인은 경제적, 교육적 요인을 선정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수용성은 조절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추론하였다.

가설: 3-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은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3.2.4 정착 적응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다문화 수용성 개념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이나 이질감 없이 존중되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말한다[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적응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 수용성의 개념을 고려하되, 측정변수로는 사회 구성원들 서로 간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생활에 대한 정착 적응성을 세분화하여 측정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심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문의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3.3 변수의 측정항목과 척도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개념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은 다음 Table 1

Table 1. Measurement item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ility		Measurement item
Economic factors	Occupational acceptance	5 questions including vocational education considering professionalism in North Korea, job placement prioritizing aptitude, job support procedures, a sense of belonging to a job, and a relative wage gap.
	Expenditure	5 questions including maintaining family livelihood, appropriate wages for working activities, additional economic activities, preparation for minimum retirement security, and support fo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nses.
Educational factors	Children Education	4 questions, including efficiency of operation of alternative schools, support for transfer and education expenses, satisfaction with public education in Korea, and limitations of educational support
	Personal Education	7 questions including job information provision, job education for job search, re-education support, job education, workplace life, appropriateness of training costs, program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and reflection of your skills.
Social relationship receptivity	Social support	5 questions including whether public facilities are inconvenient when using them, whether they can socialize or not, whether they have experienced social activities, whether they have expanded mutual faith and relationships, whether to establish an online social network, etc.
	Exclusive acceptance	4 questions, whether they have experienced conflict with their neighbors,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rejected living habits, and experienced wage discrimination with other employees.
Settlement Adaptability		Settlement Adaptability to Korean Social Lif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hometown, educational background, entry form, Korean residenc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occupation, number of children, marriage type

과 같다. 설문지 응답의 척도는 모든 문항에 '매우 낮음'에서부터 '매우 높음'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본 조사는 2020년 5월부터 1개월간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성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80명 및 오프라인 40명을 통하여 설문지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대상자는 북한선교부와 북한이탈주민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변수의 조절 효과 검정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들을 보면, 경제적 요인(0.86), 교육적 요인(0.88), 사회적 지지(0.92), 배타적 수용(0.88), 정착 적응성(0.68)으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22명(18.3%), 여자 98명(81.7%)이었으며, 연령은 30대 20명(16.7%), 40대 66명(55.0%), 50대 30명(25.0%), 60대 이상 4명(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소학교 졸업 1명(0.8%), 중학교 졸업 40명(33.3%), 전문학교 중퇴 10명(8.0%), 전문학교 졸업 30명(25.0%), 대학 중퇴 17명(14.1%), 대학 졸업 22명(18.3%)이었으며, 한국 거주기간은 1~3년 9명(7.5%), 4~6년 21명(17.5%), 7~9년 26명(21.6%), 10~12년 42명(35.0%), 13~15년 20명(16.6%), 16년 이상 2명(1.6%)이었다.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24명(20.0%), 100~200만 원 미만이 57명(47.5%), 200~300만 원 미만이 26명(21.6%), 300~400만 원 미만이 12명(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 11명(9.2%), 회사원 50명(41.6%), 자영업 17명(14.2%), 전문기술직 8명(6.6%), 주부 16명(13.3%), 무직 5명(4.1%), 기타 13명(10.8%)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14명(11.7%), 결혼 64명(53.3%), 이혼 20명(16.7%), 별거 16명(13.3%), 사별 5명(4.2%), 동거 1명(0.8%)인 것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모형의 검증 및 결과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의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요인은 교육적 요인($r=.72, p<.01$), 사회적 지지($r=.54, p<.01$), 배타적 수용성($r=.56, p<.01$) 및 정착 적응성($r=.60, p<.01$)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r=.53, p<.01$), 배타적 수용성($r=.57, p<.01$) 및 정착 적응성($r=.59, p<.01$)과 상관을 보였다. 조절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배타적 수용성 또한 다른 변인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지지는 배타적 수용($r=.87, p<.01$) 및 정착 적응성($r=.58, p<.01$)과 배타적 수용은 정착 적응성($r=.68,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정착 적응성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전체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Sortation	Variability	1	2	3	4	5
independent variable	Economic factors	1				
	Educational factors	.72**	1			
Adjusting variable	Social support	.54**	.53**	1		
	Exclusive acceptance	.56**	.57**	.87**	1	
Dependent variable	Settlement Adaptability	.60**	.59**	.58**	.68**	1

※ notes 1. Economic factors; 2. Educational factors; 3. Social support; 4. Exclusive acceptance; 5. Settlement adaptability

4.3 연구 결과

4.3.1 직업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형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022, p<.001$), 직업 만족도는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을 예측하는 정적 예측 변인으로($\beta=.512, p<.001$)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 등을 통제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2.5%를 설명하였다. 이는 직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3.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Adaptability of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Sex	.102	.097
Age	.085	.088
level of education	.190*	.136
Duration of residence	.242**	.180*
Job	-.120	-.062
Marriage	-.038	.040
Job satisfaction		.512***
R^2	.139	.364
F	2.613*	8.022***

4.3.2 경제적 소득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득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Effect of Economic Income Satisfaction on the Adaptability of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Sex	.102	.189*
Age	.085	.105
level of education	.190*	.122
Duration of residence	.242**	.247**
Job	-.120	-.037
Marriage	-.038	-.003
Economic satisfaction		.511***
R^2	.139	.370
F	2.613*	8.205***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8.205, $p < .001$), 경제적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정착 적응성을 예측하는 정적 예측 변인으로($\beta = .511$, $p < .001$)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 등을 통제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3.1%를 설명하였다. 이는 경제적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3.3 경제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Effect of Economic Factor Satisfaction on Adaptability to Korean Social Settlement on the Adjustment Effect of Social Relations Acceptabili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3 Stage
Sex	.102	.058	.043
Age	.085	.090	.078
level of education	.190*	.047	.046
Duration of residence	.242**	.133	.159*
Job	-.120	.004	-.009
Marriage	-.038	.051	.036
Economic factors(A)		.360***	.916***
Social support(B)		-.164	1.245**
Exclusive acceptance(C)		.592***	-.157
A*B			1.363
A*C			-2.427**
R^2	.139	.561	.617
F	2.613*	14.213***	14.513***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1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 형태 등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경제적 요인과 조절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배타적 수용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요인과 배타적 수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Table 5에서와 같이, 3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beta = .159$, $p < .05$), 경제적 요인($\beta = .916$, $p < .002$), 사회적 지지($\beta = 1.245$, $p < .01$), 경제적 요인과 배타적 수용 간의 상호작용($\beta = -2.427$, $p < .01$)이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통제 변인을 제외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47.6%였다.

4.3.4 자녀교육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교육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 of Children's Education Satisfaction on the Adaptability of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Sex	.102	.114
Age	.085	.058
level of education	.190*	.147
Duration of residence	.242**	.252**
Job	-.120	-.042
Marriage	-.038	.084
Satisfaction with children's education		.364***
R^2	.139	.266
F	2.613*	5.070***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070$, $p<.001$), 자녀교육 만족도는 정착 적응성을 예측하는 정적 예측 변인으로($\beta=.364$, $p<.001$)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을 통제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12.7%를 설명하였다. 이는 자녀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3.5 본인 교육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본인 교육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Effect of Educational Satisfaction on the Adaptability of Settlement in Korean Socie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Sex	.102	.015
Age	.085	-.012
level of education	.190*	.107
Duration of residence	.242**	.216**
Job	-.120	-.019
Marriage	-.038	.015
Satisfaction with Self-education		.566***
R^2	.139	.423
F	2.613*	10.265***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교육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265$, $p<.001$), 본인 교육 만족도는 정착 적응성을 예측하는 정적 예측 변인으로($\beta=.566$, $p<.001$)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을 통제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28.4%를 설명하였다. 이는 본인 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4.3.6 교육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요인 만족도가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Effect of Educational Factor Satisfaction on Adaptability to Korean Social Settlement on the Adjustment Effect of Social Relations Acceptability

Independent Variable	1 Stage	2 Stage	3 Stage
Sex	.102	-.026	-.041
Age	.085	.023	.033
level of education	.190*	.045	.032
Duration of residence	.242**	.137	.136
Job	-.120	.018	.020
Marriage	-.038	.005	-.002
Economic factors(A)		.327***	.445**
Social support(B)		-.128	.616
Exclusive acceptance(C)		.571***	.031
A*B			.900
A*C			-1.169
R^2	.139	.552	.561
F	2.613*	13.557***	11.520***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적 요인 만족도가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1 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 직업, 결혼 형태 등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육적 요인과 조절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배타적 수용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요인과 배타적 수용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8에서와 같이, 3단계에서는 교육적 요인($\beta=.445$, $p<.01$)만이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을 제외한 변인들의 설명력은 42.2%였다.

5. 결론

5.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주요 요인 즉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 한국 사회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연구분석 결과,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주요 요인과 정착 적응성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관계 수용성이 일정 부분 조절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이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43.0%를 설명하였다($F=29.404$, $p<.001$). 이중 경제적 요인($\beta=.391$, $p<.001$)이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요인은 정착 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178$, $p>.05$)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 및 배타적 수용이 정착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46.3%를 설명하였다($F=50.929$, $p<.001$). 이중 배타적 수용이 유의미한 정적 예측 변인으로($\beta=.741$, $p<.001$)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과 정착 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요인에서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경제적 요인이 정착 적응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은 경제적 요인이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또한 경제적 요인 중 직업의 만족도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따라 정착 적응성의 효과가 비중 있게 나타남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 즉, 본인의 전문성 및 적성의 반영과 사회적 지지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북한 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요인, 교육적 요인과 정착 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배타적 수용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적 요인에서 배타적 수용과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즉, 배타적 수용이 높은 집단은 교육적 요인이 높을수록 정착 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배타적 수용이 낮은 집단은 교육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정착 적응성 대한 영향 요인들의 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 정착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 수용성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사회적 지지의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영향이 미비하거나 없는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확충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5.2 정책 시사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적응성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정착 안정에 영향 요인인 경제적 소득의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직업의 안정화 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응답자들은 정착 지원에 관련하여 첫째, 직업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안정화는 곧 경제적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의 안정화는 몇 가지 준비 단계를 고려해야만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는 다소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 용이성을 고려, 직업훈련 이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이 제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실제 취업보다는 단지 장려금 수령을 위한 제도로 간주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 교육은 12주간에 걸쳐 하나원에서 실시되는데 정착 준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물론 정부가 입국 초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적응 교육 즉,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심리안정 등 동화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로지도 상담'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고, 전문성이 가미된 실질적인 직업 교육 훈련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응 교육 기간 중 직업 관련 3가지 검사(인성, 적성, 기술)와 학습 능력, 북한에서 중시했던 전문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각 개인의 특

성을 DB화하여 향후 거주지 지역 적응센터가 진로지도 를 하는데 표준화된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자료 는 거주지 지역 적응센터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 관을 알선할 때도 단순히 취업을 연결한 수준에서 발전 하여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 로로 직업의 안정화를 갖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거주지 지역 적응센터에서 취업을 위해 알선된 직업훈련 기관들의 학습반 운영은 필수적으로 취업을 위한 전문지 식 및 기술 등에 병행하여 선 이탈자 우수 정착 사례 및 체험 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 후, 안정화로 실적을 최 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취업 이후에 도 실제 취업 현장에서 직무 만족도 및 이직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직업훈련 커리큘럼 과 사후 관리 모델을 개발 및 표준화함으로써 북한이탈 주민에게 적용해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 적응 개선의 필요성이다. 북한이탈주민 정 착 교육 지원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본인 교육 적응 과 자녀교육 관련해서 만족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오 프라인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인원이 본인 교육 적 응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피력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취업 교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 지 못했다는 내용과 직업교육을 받을 때 본인이 북한에 서 익혔던 기술이 연계되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적성 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채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입국 후 실 시된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지 못했고, 더 나아가 취업 교육이 실제 구직 및 직장생활에 크게 도 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지역 적응센터는 취업 희망자 인적 사항 및 특성을 파 악하여 관리 유지하고, 희망 직종 등을 파악한 후 대한상 공회의소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북한이탈주민 특성에 맞는 전문반을 개설하여 맞춤형 직 업훈련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부에서 수 학 능력과 무관하게 대학(학부과정)에 진학하여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대학 생 활의 부적응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적응 초기에 자립 기회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된 것 이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여, 학습에 대한 적성 및 수학 능력이 갖추어진 대상에게는 지속해서 학습 기회를 주고, 그렇지 못한 대

상자들에게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통한 조기 자립 기회를 부여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 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S. Y. Ahn, *A Study on the Settlement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Ph.D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p.83, 2013. DOI: <http://doi.org/10.14363/kaps.2013.14.5.117>
- [2] Y. S. Yun,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Korean Policy Society*, Autumn Conference, pp.279-318, 2001.
- [3] U. S. Park,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olicy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Korean Society", *Korean Policy Society*, Summer Conference, pp577-603, 2008.
- [4] U. Yu, "Policy Tasks for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 Study of Public Law*, Vol.36, No.4, pp.201-231, 2008.
- [5] S. M. Lee, "A variable that affects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s", *Diaspora Research*, Vol.9, No.1, pp.155-187, 2015.
- [6] S. Y. Kong-J. M. Kim, "The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Social Response of North Korean defectors", *Humanities and Sciences Research*, No.59, pp.111-135, 2018. DOI: <http://dx.doi.org/10.33252/sih.2018.12.59.111>
- [7] U. K. Oh, *Occupational Adapt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6, 2018.
- [8] U. K. Oh, *Occupational Adapt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10, 2018.
- [9] Ministry of Unification, Yearly entry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Ministry of Unification, 2021, <https://www.unikorea.go.kr/unikorea> (accessed Aug. 10, 2021)
- [10] U. K. Oh, *Occupational Adaptation Process for North Korean defectors*,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11, 2018.
- [11] KoreaHana, A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Hana, 2016.
- [12] H. R. Kim, *The Effect of Social Appli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Quality of Life*, Ph.D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Korea, p.135, 2018.
- [13] Y. S. Yun, "Current status of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improvement measures", *Korean Policy Society*, Autumn Conference, pp.279-318, 2002.

- [14] J. H. Kim:J. H. Lee, "A Preliminary Study for the Production of Social Support Scale, *Behavioral Science Research*, Vol.8, No.1, pp.143-153, 1986.
- [15] B. S. Kwon, "A study on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ocial support", *Korean Infant and Child Care Research*, Vol.29, pp.191-220, 2002.
- [16] S. U. Kang, "Theoretical Review for Policy Application of Social Exclusion Concepts", *Trends and Prospects*, No.66, pp.9-31, 2006.
- [17] H. S. Kim, *Majority and Minority Psychology*, p.244, Jipmundang Publishers, 2014, pp.131-136.

김 영 택(Young-Taek Kim)

[정회원]



- 2003년 8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책학과 (행정학석사)
- 2020년 8월 : 순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아카데미 교수
- 2010년 3월 ~ 2018년 8월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군사학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국방장비학과 교수

<관심분야>

통일정책, 동북아안보전략, 세계전쟁사

송 세 관(Se-Gwan Song)

[정회원]



- 2002년 2월 : 한남대학교 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정치학석사)
- 2018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군사학과 (군사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조선이공대학교 군사학부장
- 2020년 3월 ~ 현재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기획위원장
- 2021년 3월 ~ 현재 : 미래군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2015년 3월 ~ 현재 : 조선이공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

안보정책, 군사전략, 북한문제